

# 日本 高野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A Study on Early Typography of Koya Edition in Japan

曹 炯 鎮 (Cho, Hyung-Jin)\*\*

## ◁ 목 차 ▷

1. 緒 論	4.5 기타
2. 高野版의 概要	4.6 綜合 評價
2.1 高野版의 定義	5. 高野版 古活字의 印出技術
2.2 高野版의 數量과 版式	5.1 墨色의 濃淡
3. 高野版 古活字의 製作技術	5.2 墨汁의  번짐과 字跡의  깨짐
3.1 材質과 製作 方法	5.3 雜痕과 雜墨
3.2 熟練度	5.4 二重 印出
3.3 기타: 例外的인 活字	5.5 印出의 方向과 強度
3.4 綜合 評價	5.6 着墨의 均整度
4. 高野版 古活字의 組版技術	5.7 綜合 評價
4.1 字跡의 從行과 橫列	6. 高野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4.2 字跡의 安置 角度	7. 結 論
4.3 文字面과 印出面의 水平	<참고문헌>
4.4 印版 匡廓의 꼭지점	

## < 초 록 >

- (1) 高野版이란 高野山의 여러 사찰에서 賴慶 등이 1604년부터 1645년까지 40여 년간, 木活字로 인쇄한 56종의 판본을 지칭한다. 양면인쇄, 현토 활자, 운모쇄지의 사용 등이 특징이다.
- (2) 活字의 재질은 목재이다. 製作技術 수준은 필서체의 필의를 표현하고 있으나, 세련되지 못하여 겨우 중중급이다.
- (3) 組版技術은 字跡의 行列이 약간씩 정연하지 못하다. 빠뜨려진 문자가 있고, 墨色 濃淡은 다소 균일하지 못하다. 광각이 대부분 없지만, 있는 경우는 꼭지점이 다소 벌어져 있다. 교정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기술 수준은 중중급.
- (4) 印出技術은 목색의 농담 차이, 墨汁의 번짐, 이중 인출 등이 보일 만큼 균정하지 못하다. 기술 수준은 겨우 중중급.
- (5) 印刷技術 수준은 겨우 중중급을 유지하고 있다.

要語: 日本 高野版, 고활자, 활자제작기술, 조판기술, 인출기술, 인쇄기술

\* 본 연구는 2016학년도 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강남대학교 KNU참인재대학 교양학부 교수(chohj@kangnam.ac.kr)

접수일: 2017년 11월 29일 최초심사일: 2017년 12월 8일 심사완료일: 2017년 12월 10일  
서지학연구, 제72집, 145-168, 2017. (<https://doi.org/10.17258/jib.2017..72.145>)

<ABSTRACT>

- (1) The Koya edition refers to 56 editions printed in wooden types by Raikei and others in several temples in the area of Koya mountain for about 40 years between 1604 and 1645. Its main characteristics are double-sided printing, types with phonetic alphabet attached, and paper pressed with sprinkled mica.
- (2) The material for the type was wood. The type-making technique imitates script writing style to some extent, yet its quality is not sophisticated enough and barely middle-middle grade.
- (3) The typesetting technique shows somewhat unevenly aligned vertical and lateral stripes of character trace. There are some skewed characters and the tone of ink color is not very consistent. The edition frame has no edge in general, and when there are edges, they are somewhat splayed apart. Some of the corrections are not precise. The technical quality is middle-middle grade.
- (4) The brushing technique shows some inconsistency, with substantial variance in ink color thickness, frequent spreads of chinese ink and intermittent double printing. The technical quality is barely middle-middle grade.
- (5) The type printing quality is barely middle-middle grade.

Key words: Koya edition, early type, type-making technique, typesetting technique, brushing technique, typography

## 1. 緒論

일본의 고탄자 인쇄는 1590년 서양과 1593년 조선으로부터 그 기술이 전래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慶安년간(1648-1651)까지 62년간 京都 지방을 중심으로 서적 간행에 이용되었다.

일본의 고탄자 인쇄는 크게 爲政者 및 정부기관에 의한 인쇄, 京洛과 地方의 사찰에 의한 인쇄, 서사 및 개인에 의한 인쇄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和歌山縣 紀州 高野山 지역의 여러 사찰이 江戸시대(1603-1867) 초기에 간행한 고탄자본, 즉 高野版 활자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판본의 감정은 문헌 자료나 일본 소장처의 목록에 저록된 것을 따랐다.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을 통한 문헌연구법과 고탄자본 실물을 직접 분석하는 직관법 등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고야판의 개요·활자의 제작기술·조판(인판의 제작)기술·인출기술, 그리고 이를 종합한 인쇄기술의 수준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인쇄기술 부분을 특히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일본에서도 문화사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기술사적 연구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인쇄기술 수준의 분석을 위한 표준은 필자가 이미 발표한 평가 요소를 이용하였다.<sup>1)</sup> 인쇄기술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판본을 각각 분석한 것을 모아서 고야판 전체를 집단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평가 표준에 나타난 평가 요소의 정도와 수량을 일일이 수치로 표시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정황을 기술하였다.

판본학 연구에서 서영은 필수적이다. 한국서지학회의 발표논집에 수록한 서영을 참고하기 바란다.<sup>2)</sup>

## 2. 高野版의 概要<sup>3)</sup>

### 2.1 高野版의 定義

#### 2.1.1 高野版의 刊行 地域

高野版이란 和歌山縣 紀州 高野山 지역에 소재한 金剛三昧院을 중심으로 한 여러 사찰이 간행한 서적을 지칭한다. 고야산 지역은 鎌倉시대(1192-1333) 중기에 이르러 南都(奈良) 여러 사찰의 영향

1) 曹炯鎭, “古活字 印刷技術의 評價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25(2003. 6), 369-406.

2) 조형진, “日本 高野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2017년 한국서지학회 추계 공동 학술대회(발표논집)』 (2017. 11. 24), 134-143.

3) 水原堯榮, “高野版의 研究,” 『水原堯榮全集5』 (東京: 同朋舍, 1981); 水原堯榮, “高野版英華,” 『水原堯榮全集卷1』 (東京: 同朋舍, 1981); 川瀬一馬, 『増補古活字版之研究』 (東京: 共立社, 1967), 311-314, 732-736; 木宮泰彦, 『日本古印刷文化史』 (東京: 富山房, 1975), 441-442. 문화사적인 내용은 이들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다.

으로 목판인쇄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永正 18년(1521) 대화재로 대부분의 책판이 소실되어 쇠락하였다가, 근세 초두에 다시 활성화 되면서 江戸시대 초기인 慶長년간(1596-1614)에 이르러 比叡山에 이어 활자 인쇄가 왕성했던 곳이다.

이처럼 고야산 지역에서 활자 인쇄와 동시에 목판본도 상당히 병행했던 점은 여타의 사찰판과 다른 특징이다. 그러나 고야산 지역 각 사찰의 개관사업은 비예산 지역 등 기타 사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寛永년간(1624-1643)을 지나면 山内の 書肆에 위탁하는 형태로 발전하면서, 이와 동시에 사찰의 활자 인쇄도 그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 2.1.2 高野版의 刊行 主體

### 2.1.2.1 賴慶와 朝印

高野 지역의 학승인 賴慶와 朝印 등은 文祿 3년(1594) 德川家康를 따라서 高野에 왔던 圓光寺의 三要元佶(閑室元佶)와 교류하면서 慶長년간에 京洛 지역의 활자인쇄술을 도입하여, 목판으로 서적을 인쇄해 오던 고야판 간행사 상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三要는 德川家康의 명에 의하여 慶長 4년(1599)부터 11년(1606)까지 伏見版 간행을 주관하였으며,<sup>4)</sup> 慶長 11년 駿河版 동활자의 1차 주조에도 관여한 인물이다.<sup>5)</sup> 따라서 賴慶와 朝印 등은 이로부터 자연스럽게 활자인쇄술을 전수 받을 수 있었다.

賴慶는 朝印과 함께 家康의 귀의를 받았던 宥賢房이라 불리는 걸출한 승려이다. 慶長 13년(1608) 江戸城에서 淨土宗 傳通院의 廓山과 日蓮宗 常樂院의 日經가 宗論할 때, 幕府로부터 判者 證義를 命받았고, 또 慶長 14년(1609)에는 駿府城에서 家康를 위하여 眞言의 教義를 설명하고, 古義 眞言의 융성에 진력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賴慶는 고야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활자본을 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寛永年間高野版木活字印本『光明眞言初心要鈔』에 賴慶가 慶長 9년(1604)에 쓴 발문이 있다.<sup>6)</sup>

朝印은 慶長 14년에『秘密曼荼羅十住心論』을 간행하였다. 또한 간기 “右一冊於寶龜院朝印校合之畢”은 있으나, 간년이 없는『釋論決擇集』도 간행하였다.

### 2.1.2.2 幸悅

慶長년간에 활자본을 많이 간행했던 인물로 幸悅을 들 수 있다. 慶長 13년에『四種曼荼羅義』를,

4) 曹炯鎮, “日本 伏見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59(2014. 9), 65-101.

5) 曹炯鎮, “日本 駿河版 및 紀州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60(2014. 12), 75-77.

6) 이 발문으로 인하여, 한때 이를 慶長9年(1604)高野山賴慶版木活字印本으로 오해하기도 하였다.

慶長 15년(1610)에는 「金剛頂經開題」·「大日經開題」·「梵網經開題」·「阿字義」·「仁王經開題」·「最勝王經開題」 등 모두 7종을 간행하였다. 또한 慶長 14년 朝印의 「秘密曼荼羅十住心論」에도 각수로 참여하였다.<sup>7)</sup>

### 2.1.2.3 良算

金剛三昧院의 良算은 元和 2년(1616)에 「大毘盧遮那成佛經疏」를 간행하였다.

### 2.1.2.4 淨善

元和(1615-1623)·寬永년간에 교야관의 활자인쇄에 가장 많이 노력한 인물은 尾州 丹羽郡의 丹下 淨善이다. 慶長 14년 朝印의 「秘密曼荼羅十住心論」에도 참여했던 淨善이 간행한 활자본은 모두 11종에 이른다. 元和 3년(1617)의 「十住心論廣名目」·元和 9년(1623)의 「百法問答抄」·元和 10년(1624)의 「玉澤不渴鈔」·寬永 3년(1626)의 「玉印鈔」·寬永 4년(1627)의 「開心鈔」·寬永 5년(1628)의 「秘密曼荼羅十住心論」·寬永 8년(1631)의 「秘密曼荼羅教付法傳」·寬永 11년(1634)의 「廣付法傳聞書」와 간년이 없는 「秘藏記」·「釋論名目」·「釋論名目私鈔」 등이다.<sup>8)</sup>

### 2.1.2.5 應宣

寶光院의 應宣이 간행한 활자본은 寬永년간의 2종이 있다. 寬永 8년의 「三教指歸私鈔」와 寬永 12년(1635)의 「古筆拾葉鈔」 등이다.

### 2.1.2.6 深昌

清淨心院의 深昌은 寬永 21년(1644)에 「開心鈔」를 간행하였다.

### 2.1.2.7 사찰

교야관 활자본의 간기에 나타난 사찰은 모두 5곳으로 寶壽院·寶藏院·西院·成蓮院·蓮福院 등도 子院의 이름으로 간행하였다. 이중 蓮福院은 「秘藏記」 4종(寬永년간)과 「釋摩伽衍論記」(寬永 6년, 1629)·「諸尊表白鈔」(寬永 15년, 1638)·「地藏引導集」(寬永 16년, 1639)·「表白集」(寬永 12년)

7) 여기에 참여한 각수는 幸悅 외에도 宗安과 淨善이 있다.

8) 이밖에도 같은 시기의 목판본으로 「開心鈔」·「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疏」·「遍照發揮性靈集」 등이 있다.

등 8종을 간행하였다.

### 2.1.3 高野版의 刊行 時期

고야판 고탈자 인쇄가 최초로 시작된 것은 賴慶에 의하여 慶長 9년일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실물이 나타나지 않아서 단정 짓기는 어렵다. 확인된 실물로는 慶長 13년 幸悅이 간행한 『四種曼荼羅義』이다. 이는 권말에 “慶長十三年八月廿四日 幸悅刊之”의 간기가 있어서 알 수 있다.

고야판 활자본의 마지막 판본은 正保 2년(1645) 成蓮院이 간행한 『表白集』이다. 이에는 “崑正保二年七月二十一日 於高野山 成蓮院 開板之” 또는 “崑正保二年八月吉日 於高野山 成蓮院 開板之”의 간기가 있다. 이는 고야판 활자본 중에서 간년이 명기된 마지막 판본이다.

이로써 고야산 지역에서 활자로 서적 인쇄가 이루어진 기간은 40년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 2.1.4 高野版의 刊行 手段

고야판의 각종 판본을 직관하면, 예외 없이 모두 목활자를 이용하였다. 이들 목활자는 문자의 크기도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문자의 서체와 필법이 다른 점으로 미루어 동종 활자가 아니며 간행자가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

특기할 점은 당시 사용하였던 약간의 목활자가 고야산 西禪院에 현존하는 점이다. 전체 수량은 3,234개이다. 높이는 약 18.18mm로 일정하다. 배면은 평평하고, 대형의 것은 사방 약 13mm, 중형의 것은 사방 약 11mm, 小註 쌍행에 사용한 소형의 것은 횡 10.0mm, 종 6.06mm이다.

## 2.2 高野版의 數量과 版式

### 2.2.1 高野版의 數量

오늘날 각 기관의 소장목록과 해제, 연구문헌의 검색을 통하여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알려진 고야판은 56종으로 다음의 목록과 같다. 앞으로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이중 본 연구를 위하여 실시한 판본은 8종이며, 서영을 참고한 것은 10종(2종은 실사 판본과 중복, 1종은 서영과 중복)이다.

<高野版 古活字本 目錄>

	書名	卷-冊數	版本事項 <sup>9)</sup>	비고
1	開心鈔	3-3	寬永元年(1624)高野山西院版木活字印本	(8)圖2
2	開心鈔	3-3	寬永4年(1627)高野山金剛峰寺淨善版木活字印本	(1)三Ab2 <sup>10)</sup> (2)31-13-346
3	開心鈔	3-3	寬永21年(1644)高野山清淨心院深昌版木活字印本	
4	古文孝經	1-1	高野山寶壽院版木活字印本	(6)
5	古筆拾葉鈔	6-6	寬永12年(1635)高野山往生院應宣版木活字印本	(8)圖281
6	廣付法傳聞書	3-3	寬永11年(1634)高野山淨善版木活字印本	(8)圖253
7	光明真言初心要鈔	1-1	寬永年間(1624-1643)高野版木活字印本	異植版 있음 (小汀문고 소장) <sup>11)</sup>
8	金剛峰樓閣一切瑜伽論經	1-1	寬永年間(1624-1643)高野版木活字印本	(2)31-13-344
9	金剛頂經開題	1-1	慶長15年(1610)高野山幸悅版木活字印本	(12)
10	大毘盧遮那成佛經疏	3-5	元和2年(1616)高野山金剛三昧院良算版木活字印本	
11	大日經開題	1-1	慶長15年(1610)高野山幸悅版木活字印本	(9)50 (10)
12	百法問答抄	8-9	元和9年(1623)高野山淨善版木活字印本	
13	梵網經開題	1-1	慶長15年(1610)高野山幸悅版木活字印本	
14	佛垂般涅槃略說教誡經	1-1	寬永年間(1624-1643)高野版木活字印本	
15	秘密曼荼羅教付法傳	2-1	慶長年間(1596-1614)高野版木活字印本	(2)25-59-1074 <sup>12)</sup>
16	秘密曼荼羅教付法傳	2-1	寬永8年(1631)高野山淨善版木活字印本	(8)圖178 (10)
17	秘密曼荼羅十住心論	10-10	慶長14年(1609)高野山寶龜院朝印版木活字印本	(11) (13)
18	秘密曼荼羅十住心論	10-10	寬永5年(1628)高野山淨善版木活字印本	
19	秘藏記	2-2	寬永12年(1635)高野山清淨心院蓮福院版木活字印本	
20	秘藏記	2-2	寬永15年(1638)高野山清淨心院蓮福院版木活字印本	
21	秘藏記	2-2	寬永16年(1639)高野山清淨心院蓮福院版木活字印本	
22	秘藏記	2-2	寬永年間(1624-1643)高野山清淨心院蓮福院版木活字印本	(4)余丙115
23	秘藏記	1-1	高野山淨善版木活字印本	
24	秘藏要門集	5-5	慶長年間(1596-1614)高野版木活字印本	(1)三Ab47
25	四種曼荼羅義	1-1	慶長13年(1608)高野山幸悅版木活字印本	
26	柚保隱通鈔	20-20	高野版木活字印本	
27	三教指歸私鈔	10-10	寬永8年(1631)高野山應宣版木活字印本	(2)31-13-345 <sup>13)</sup> (5) <sup>14)</sup> (8)圖156

9) 일본의 판본사항 기록 방식은 활자본일지라도 ‘모년모주체刊’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모년모주체刊行’의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는 판본의 생산 수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활자본의 경우는 ‘모년모주체모활자(모년鑄 또는 모년刻) 印本’으로 기록한다. 왜냐하면 刊本 또는 刻本은 목판본을 의미하며, 활자본은 활자의 제작 시기와 인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10) 卷上, 卷下만 소장, 卷中은 결락.

11) 川瀬一馬(1967), 735.

12) 권2만 高野版木活字本. 권1은 鎌倉年間高野版木版本.

13) 卷下之下는 결락.

14) 和田萬吉, 『日本古活字本研究資料』(東京: 清閑舎, 1944), 164-165.

	書名	卷-冊數	版本事項 <sup>9)</sup>	비고
28	釋論決擇集	20-20	高野山寶龜院朝印版木活字印本	
29	釋論名目	2책	高野山淨善版木活字印本	
30	釋論名目私鈔	1책	高野山淨善版木活字印本	
31	釋摩伽衍論記	6-6	寬永6年(1629)高野山清淨心院蓮福院版木活字印本	
32	釋摩伽衍論贊支疏	5책	高野版木活字印本	
33	釋摩伽衍論通支鈔	4책	高野版木活字印本	
34	心月輪觀秘釋	1-1	寬永19年(1642)高野山往生院寶藏院版木活字印本	
35	心月輪觀秘釋	1-1	無刊記高野版木活字印本	
36	十住心論廣名目	6-6	元和3年(1617)高野山淨善版木活字印本	
37	阿字義	1-1	慶長15年(1610)高野山幸悅版木活字印本	
38	阿字義	1-1	無刊記高野版木活字印本	
39	五輪九字明秘密釋	1-1	高野版木活字印本	
40	玉印鈔	10-7	寬永3年(1626)高野山淨善版木活字印本	(2)31-29-383 (7)188.4- 15915) (8)圖31
41	玉澤不渴鈔	2-2	元和10年(1624)高野山淨善版木活字印本	(3)091- 101-1
42	玉澤不渴鈔	2책	寬永年間(1624-1643)高野版(或坊刻版?)木活字印本	
43	引導印信		寬永年間(1624-1643)高野版木活字印本	
44	仁王經開題	1-1	慶長15年(1610)高野山幸悅版木活字印本	(9)49
45	一乘經劫之事		寬永年間(1624-1643)高野版木活字印本	
46	葬送法用	5책	寬永年間(1624-1643)高野版木活字印本	
47	諸尊表白鈔	8-8	寬永15年(1638)高野山清淨心院蓮福院版木活字印本	
48	宗義決擇集	22-22	寬永年間(1624-1643)高野版木活字印本	
49	地藏引導集	10-10	寬永16年(1639)高野山清淨心院蓮福院版木活字印本	
50	眞言二字義	1-1	寬永年間(1624-1643)高野版木活字印本	(7)188.4- 157
51	剃髮作法(初出家戒儀)		高野版木活字印本	
--	初出家戒儀		「剃髮作法」을 보라	
52	最勝王經開題	1-1	慶長15年(1610)高野山幸悅版木活字印本	
53	遍照發揮性靈集	10책	寬永年間(1624-1643)高野版木活字印本	
54	表白集	8-8	寬永12年(1635)高野山清淨心院蓮福院版木活字印本	
55	表白集	5책	正保2年(1645)高野山成蓮院版木活字印本	
56	弘法大師御請來目錄		寬永年間(1624-1643)高野版木活字印本	

비고: 관본의 소장처와 청구기호. 실사 관본에는 실선 밑줄, 서영 참고 관본에는 점선 밑줄.

- (1) = 東洋文庫, (2) = 大東急紀念文庫, (3) = 慶應義塾大學附屬研究所斯道文庫, (4) = 大谷大學圖書館(京都),  
 (5) = 東京大學, (6) = 東北大學, (7) = 天理圖書館, (8) = 「寬永版書目并圖版」, (9) = 「弘文莊古活字版目錄」,<sup>16)</sup>  
 (10) = 寶龜院, (11) = 延曆寺, (12) = 正智院, (13) = 親王院.

이들의 간행 년도 별 수량은 慶長 13년에 1종, 14년에 1종, 15년에 6종, 元和 2년에 1종, 3년에 1종, 9년에 1종, 10년에 1종, 寬永 원년(1624)에 1종, 3년에 1종, 4년에 1종, 5년에 1종, 6년에 1종, 8년에 2종, 11년에 1종, 12년에 3종, 15년에 2종, 16년에 2종, 19년(1642)에 1종, 21년에 1종, 正保

15) 보존상태 불량으로 열람 불가.

16) 이는 관매목록이므로 해당 관본의 현재 소재지는 바뀌었을 수 있다.

2년에 1종이다. 무간기본은 26종인데, 그중 慶長년간으로 추정되는 것이 2종, 寬永년간으로 추정되는 것이 12종이다.

이들의 크기는 1권에서 22권의 경우까지 있지만, 미확인 4종을 제외하더라도 10권 이하가 49종에 이를 만큼 소형의 저술이 많다.

같은 서적을 중복 인출한 경우가 8종이다. 이중 간행 주체가 같은 경우는 蓮福院의 『秘藏記』 4개 판본 1종뿐이고, 나머지 7종은 다르다. 『秘藏記』는 淨善도 간행하였다. 이는 서적 간행 시 중복을 피하기 위한 조정 기구 없이, 간행 주체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간행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 2.2.2 高野版의 版式 상 特徵

실사자 8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서영이나 문헌 자료는 분석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서술하지 않고 제각각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고야판 이해에 필요한 요소만 참고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2.2.1 表紙 題簽 書名

제침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3종(『三教指歸私鈔』·『玉印鈔』·『眞言二字義』), 제침 없이 표지에 묵서한 경우가 5종이다. 『三教指歸私鈔』와 『玉印鈔』는 표지를 개장하였다. 『金剛峰樓閣一切瑜伽瑜祇經』는 “瑜祇經”으로, 『三教指歸私鈔』는 “三教指歸鈔”로 약서명을 썼고, 기타는 본서명을 쓰고 있다.

### 2.2.2.2 匡廓 형식

광곽이 없는 경우가 7종으로 대부분이다. 『三教指歸私鈔』만이 사주단변이다. 문헌 기록에 나타난 것도 대부분이 광곽이 없고, 『遍照發揮性靈集』은 사주쌍변이다.

### 2.2.2.3 界線 유무

8종 모두 계선이 없다. 문헌 기록에 나타난 것도 모두 계선이 없다. 짐작하건데 인판에는 높이가 활자보다 낮은 계선과 유사한 행간재가 있었을 터이지만, 인출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관심을 구분하는 계선 역시 없는데, 예외적으로 『三教指歸私鈔』만 있다.

#### 2.2.2.4 行數

한 엽에 6행이 1종(『眞言二字義』), 7행이 3종(『金剛烽樓閣一切瑜伽瑜祇經』·『秘密曼荼羅教付法傳』·『秘藏要門集』), 9행이 3종(『開心鈔』·『玉印鈔』·『王澤不渴鈔』), 10행이 1종(『三教指歸私鈔』)이다. 문헌 기록에는 8행도 있다(『遍照發揮性靈集』). 예외적으로 『玉印鈔』 권10, 제8엽부터 제13엽까지의 “金剛頂大教王相兼師資血脉圖”에서는 계선 폭을 줄여서 11행까지 조판하였다.

#### 2.2.2.5 字數

활자의 크기는 대·중·소로 구분할 수 있다. 판본에 따라서 3종을 모두 사용한 경우도 있고, 1종만 사용한 경우도 있다. 17자(『金剛烽樓閣一切瑜伽瑜祇經』·『秘密曼荼羅教付法傳』·『三教指歸私鈔』·『眞言二字義』)·18자(『秘藏要門集』)·19자(『開心鈔』·『王澤不渴鈔』)·20자(『玉印鈔』) 등이다. 중간 크기의 활자를 사용한 판본이 있는데, 『秘藏要門集』은 대자와 같이 18자를 배열한 반면, 『三教指歸私鈔』는 20자를 배열하였다. 문헌 기록에 의하면 대체로 17~20자인데, 예외적으로 12자를 배열한 판본이 있다(『引導印信』·『葬送法用』·『表白集』). 이들은 모두 枱型本이다.

#### 2.2.2.6 小註 형식

小註가 없는 『眞言二字義』를 제외하면, 모두 소자 활자를 사용하여 쌍행으로 배열하였다. 자수는 본문의 대자와 같으나, 『金剛烽樓閣一切瑜伽瑜祇經』은 1자 많은 18자를, 『三教指歸私鈔』는 중자와 같은 20자를 배열하였다. 『王澤不渴鈔』는 天頭에 1~2자를 더 배열한 곳이 있고, 권하 제 7엽부터 12엽까지는 1자 많은 20자를 배열하였다.

#### 2.2.2.7 판구와 판심제 형식

백구가 6종(『開心鈔』·『金剛烽樓閣一切瑜伽瑜祇經』·『秘藏要門集』·『三教指歸私鈔』·『玉印鈔』·『眞言二字義』)으로 대부분이다. 흑구는 『王澤不渴鈔』 1종인데, 권하 제1엽은 백구다. 『秘密曼荼羅教付法傳』은 판심제 “付法”의 위치가 판구 상단에서 약간 아래에 있지만, 화구로 볼 수 있다. 권차와 장차도 판심제에 연이어 있다.

판심제는 있을 경우 모두 약서명으로 되어 있다. 크기는 대부분이 소자로 되어 있는데, 『金剛烽樓閣一切瑜伽瑜祇經』과 『秘密曼荼羅教付法傳』은 대자로 되어 있고, 『三教指歸私鈔』는 극소자로 되어 있다. 『眞言二字義』는 판심제는 없고 장차만 있다. 문헌 기록에도 『秘藏記』(寬永년간본)는 판심제가 없다.

### 2.2.2.8 魚尾 형식

흑어미가 2종(『開心鈔』·『玉印鈔』)인데, 어미의 모양이 전통적인 형태가 아닌 “▲”이다. 『三教指歸私鈔』·『玉澤不渴鈔』는 상하내향삼엽화문어미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三教指歸私鈔』에는 간혹 흑어미도 있고, 『玉澤不渴鈔』의 권하 제 1엽은 “▲”이다. 나머지 4종은 어미가 없다. 서영에 의하면 『秘藏記』(寬永년간본)는 전통적인 형태의 흑어미이다.

### 2.2.2.9 기타 특징

#### (1) 兩面 印刷와 高野紙 사용

고야판에는 다른 판본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다른 지역의 사찰본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양면 인쇄를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 수공업으로 생산하는 종이는 부드럽고 얇아서 문자나 그림을 쓰거나 인쇄하면 뒷면에 환히 투과되어 양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고야판은 고야산 기슭에서 생산한 두툼한 高野紙를 사용한 결과 양면 인쇄판본이 있다. 실사한 판본 중에도 『金剛峰樓閣一切瑜伽瑜祇經』·『秘密曼荼羅教付法傳』·『眞言二字義』의 3종이 있고, 문헌 기록에도 『大日經開題』·『梵網經開題』·『秘密曼荼羅十住心論』·『心月輪觀秘釋』·『阿字義』·『引導印信』·『仁王經開題』·『表白集』 등이 있다.

고야지를 본문뿐만 아니라 표지에 사용하고 있는 점도 활자 양식과 함께 고야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2) 장정 형식과 판심

粘葉裝(胡蝶裝)과 線裝으로 대별된다. 양면 인쇄의 경우 인쇄된 내용이 노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서엽의 판심을 접어서 겹친 후, 접힌 부분의 밖을 풀로 붙여서 장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점엽장이라 한다. 호접장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사한 판본 중에는 『金剛峰樓閣一切瑜伽瑜祇經』·『秘密曼荼羅教付法傳』·『眞言二字義』 등이 있다. 문헌 기록에는 『金剛頂經開題』·『大毘盧遮那成佛經疏』·『大日經開題』·『梵網經開題』·『佛垂般涅槃略說教誡經』·『秘密曼荼羅十住心論』(慶長14년본)·『四種曼荼羅義』·『釋摩伽衍論記』·『釋摩伽衍論贊玄疏』·『釋摩伽衍論通玄鈔』·『心月輪觀秘釋』(寬永19년본)·『心月輪觀秘釋』(무간기본)·『阿字義』(慶長15년본)·『阿字義』(무간기본)·『五輪九字明秘密釋』·『仁王經開題』·『葬送法用』·『最勝王經開題』·『表白集』(正保2년본) 등이 있다.

일본 판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柀型本이 있다. 가로 세로의 길이가 정사각형에 가까운 정방형의 서적에 붙여진 명칭이다. 매 엽의 행수는 여타의 판본과 비슷하나, 매 행의 자수는 자연히 적을

수밖에 없다. 문헌 기록에 의하면 「引導印信」·「葬送法用」·「表白集」(正保2년본) 등이 있다. 이들은 7행에 12자를 배열하였다. 「表白集」은 점엽장이기도 하다.

양면 인쇄한 판본은 판심이 모든 엽에 있지 않고, 판심을 중심으로 접었을 경우 각 장의 바깥쪽인 제1·4쪽에만 있고, 안쪽인 제2·3쪽에는 없다. 바깥쪽을 풀로 붙여서 장정하였으므로 판심이 숨어 있기도 하고 그 배면인 제2·3쪽에 은은히 투영되어 보이기도 한다.

### (3) 懸吐 活字와 懸吐

현토 活字란 漢字의 우측 옆에 발음을 토(振假名)로 단 활자를 지칭한다. 일본은 이를 ‘附訓活字’라 한다. 고야판은 片假名을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자 사이의 행간에 “レ” 점과 숫자 등의 현토를 붙이기도 하였다.<sup>17)</sup> 일본은 이를 ‘訓點’이라 한다. 이 형식은 예산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사한 판본 중에도 「開心鈔」·「三教指歸私鈔」·「玉印鈔」가 있고, 문헌 기록에도 「古筆拾葉鈔」·「光明眞言初心要鈔」·「柚保隱遁鈔」·「釋論決擇集」·「心月輪觀秘釋」·「引導印信」·「葬送法用」·「宗義決擇集」·「遍照發揮性靈集」 등이 있다.

片假名·振假名·訓點 등을 행간이나 본문 활자 양측에 두루 넣는 조판 방식은 조판 기술 상당히 까다로워서 인쇄 기술적으로 한 단계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 (4) 雲母刷紙

종이에 장식을 위하여 운모 가루를 뿌려서 압착한 종이를 운모쇄지라 한다. 고야판은 고야지 특유의 두꺼운 종이에 운모 가루를 뿌린 책지를 사용하였다.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접착에 의한 듯 일부는 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운모의 불투수성에 의하여 인쇄 상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기도 하였다(「秘密曼荼羅教付法傳」).

### (5) 특수 활자 및 목판 병용

∴ · ∆ · ● 등의 기호 활자를 사용하기도 하였고(「三教指歸私鈔」·「玉印鈔」), 범어 활자를 사용하기도 하였다(「金剛峰樓閣一切瑜伽瑜祇經」). 도형은 활자로 표현할 수 없으니 목판을 병용하였다(「葬送法用」).

17) 返(リ)點. 한문을 혼독할 때 한자의 왼쪽에 붙여 아래에서 위로 올려 읽는 차례를 매기는 기호로, 一·二, 上·下, 甲·乙, 天·地 등을 사용한다.

### 3. 高野版 古活字의 製作技術

高野版의 인쇄기술에 대하여 실시한 판본을 바탕으로, 활자 인쇄의 3요소인 활자의 제작, 조판 = 인판의 제작, 인출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기술 수준을 분석한 후, 이를 종합하여 전반적인 인쇄기술을 평가하였다.

#### 3.1 材質과 製作 方法

##### 3.1.1 字樣과 字跡의 일치 여부

전체적으로 자양이 다소 또는 제법 차이되면서 세련도가 약간(『金剛峰樓閣一切瑜伽瑜祇經』·『秘密曼荼羅教付法傳』·『秘藏要門集』·『三教指歸私鈔』·『眞言二字義』) 또는 제법 떨어진다(『開心鈔』·『玉印鈔』·『王澤不渴鈔』).

##### 3.1.2 刀刻의 痕迹

도각의 흔적은 필획이 교차하는 곳과 필획의 윤곽에서 간혹 보이는데(『秘藏要門集』·『三教指歸私鈔』·『玉印鈔』), 대자의 경우 서체가 둥근 형태이므로 도각 흔적이 드물게 보인다(『三教指歸私鈔』).

필획이 교차하는 곳에서는 간혹 보이지만, 윤곽에서는 분명하여 쉽게 보이기도 하고(『金剛峰樓閣一切瑜伽瑜祇經』·『秘密曼荼羅教付法傳』·『三教指歸私鈔』), 필획이 교차하는 곳과 윤곽 모두에서 분명하여 쉽게 보이기도 한다(『開心鈔』·『王澤不渴鈔』·『眞言二字義』).

##### 3.1.3 木理의 有無

목리가 간혹 보이기도 하고(『開心鈔』), 큰 목리는 드물게 보이지만, 작은 목리가 꾸준히 보이기도 한다(『秘密曼荼羅教付法傳』·『三教指歸私鈔』).

크고 작은 목리가 쉽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金剛峰樓閣一切瑜伽瑜祇經』·『秘藏要門集』·『玉印鈔』·『王澤不渴鈔』). 일반적으로 목리는 가로 선으로 나타나지만, 대부분이 세로 선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眞言二字義』). 많이 사용하여 활자가 마모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玉印鈔』).

## 3.2 熟練度

### 3.2.1 筆書體의 筆意 表現

자형 및 필획의 윤곽과 필획 굵기의 균정도를 살펴보면, 모든 판본에서 필서체의 필의를 살리고 있다.

### 3.2.2 文字의 美感

서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필획은 균정한 편이다. 다만 서체가 다르고, 필획이 가늘고, 크기가 다소 작으며, 윤곽을 다듬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착묵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필획 윤곽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힘 있고 부드러운 굵은 필획의 해서체 심미감을 엿볼 수 있을 만큼의 조각술을 갖추고 있다(『秘密曼荼羅教付法傳』).

서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간혹 다소의 부조화 문자가 섞여 있다. 필획은 윤곽에 다듬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다소 균정하지 못하다. 많이 사용하여 윤곽이 퇴화되어 균정도를 잃어가고 있다. 원래 굵게 조각한 듯한 필획이 후덕하고 묵직한 부드러운 해서체를 표현하고 있으나, 제법 사용하여 다소의 심미감을 상실하면서 지금은 원래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이다. 세련도는 다소 떨어지고 있다(『金剛烽樓閣一切瑜伽瑜祇經』·『秘藏要門集』·『三教指歸私鈔』·『眞言二字義』). 서체의 균형과 필획의 균정도가 활자의 대·중·소 순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三教指歸私鈔』). 필획이 결실된 문자가 있다(『眞言二字義』).

서체의 균형을 대체로 유지하고는 있으나, 부조화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고, 부조화 문자의 수량도 적지 않다. 필획은 균정하지 못하고 다듬지 않은 거친 모습 그대로다. 서체와 굵은 필획의 윤곽이 퇴화한 점, 도각 흔적은 분명한데, 목리는 다소 약한 점 등에서 활자 조성 후 시간은 많이 지나지 않았으나, 많이 사용한 활자로 보인다. 세련도 역시 심미감을 논하기 어렵고, 필획을 겨우 조각해 내는 수준이다(『開心鈔』·『玉印鈔』·『王澤不渴鈔』). 부드러운 해서체를 표현하고 있는데, 필획의 굵기가 크게 차이나는 점으로 보아 조각 시에도 그다지 균정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자 크기가 다른 경우도 간혹 보인다(『玉印鈔』).

## 3.3 기타: 例外的인 活字

간혹 드물게 필획의 굵기가 얇은 문자가 보이는데, 보자인 듯하다(『金剛烽樓閣一切瑜伽瑜祇經』). 운모쇄 책지여서 목색이 금속 분위기를 띤 경우가 적지 않다. 간혹 가로 획이 세로 방향의 목리인

듯 끊어져 있는 문자가 있다. 이는 세로 목리라기보다는 운모지에 의한 착묵 불완전의 결과로 보인다(『秘密曼茶羅教付法傳』).

### 3.4 綜合 評價

활자 제작기술 수준이 필서체의 자형을 표현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심미감을 논할 수 있을 만큼 세련되지는 못한 수준이다.

중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5종(『金剛烽樓閣一切瑜伽瑜祇經』·『秘密曼茶羅教付法傳』·『秘藏要門集』·『三教指歸私鈔』·『眞言二字義』), 나머지 3종은 중하급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겨우 중등급이다.

## 4. 高野版 古活字의 組版技術

### 4.1 字跡의 從行과 橫列

#### 4.1.1 從行

대체로 가지런하면서도 미세한 치우침으로 인하여 아주 약간만 삐뚤해 보이거나(『秘藏要門集』·『三教指歸私鈔』·『眞言二字義』), 다소 삐뚤해 보이면서 간혹 행이 약간 굽은 경우가 있다(『秘密曼茶羅教付法傳』).

다소의 치우침이 있어서 삐뚤삐뚤하기도 하고 구불구불한 경우가 있다(『開心鈔』·『金剛烽樓閣一切瑜伽瑜祇經』·『玉印鈔』). 대·소 문자 모두 같은 현상을 보인다(『王澤不渴鈔』).

#### 4.1.2 橫列

대체로 자간 거리를 유지하며 맞추고 있는데(『眞言二字義』), 드물게 아주 약간의 굴곡이 보이거나(『秘密曼茶羅教付法傳』), 간혹 다소의 굴곡이 보인다(『秘藏要門集』).

한문 부분에서도 다소의 굴곡이 보일 뿐만 아니라 크기가 다른 범어 활자를 사용하거나(『金剛烽樓閣一切瑜伽瑜祇經』), 현토 등의 소형 기호 활자를 사용한 까닭에 맞지 않기도 하고(『開心鈔』·『玉印鈔』), 대·중·소 활자가 섞여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중자도 맞지 않아서 굴곡이 적지 않다(『三教指歸私鈔』). 소자를 1자 더 배열한 경우도 있다(『金剛烽樓閣一切瑜伽瑜祇經』·『王澤不渴鈔』).

굴곡이 적지 않으며, 아예 맞추지 않은 듯한 엽도 보인다(『玉澤不渴鈔』).

## 4.2 字跡의 安置 角度

빼뜰어진 정도가 약간의 경우는 다소 보이나, 두드러진 경우는 거의 없을 만큼 바르다(『秘密曼茶羅教付法傳』).

빼뜰어진 정도가 두드러진 경우는 엽 당 2~3자(『眞言二字義』), 4~5자(『秘藏要門集』·『玉澤不渴鈔』), 7~8자(『開心鈔』·『三教指歸私鈔』), 10자(『金剛烽樓閣一切瑜伽瑜祇經』·『玉印鈔』) 등 편차를 보인다. 약간 정도인 경우도 다양하여 두드러진 경우와 같은 비례로 나타나고 있다.

문자가 판면 가득 배열된 곳에서는 비교적 바르게 조판되었는데, 배열된 문자가 적어서 여백이 많은 곳에서는 심하게 틀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 엽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지만, 두드러진 경우는 4~5자 정도 보인다(『玉澤不渴鈔』).

## 4.3 文字面과 印出面의 水平

### 4.3.1 文字面의 水平

일부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드물게 보이는데 경중이 섞여 있다(『開心鈔』·『金剛烽樓閣一切瑜伽瑜祇經』·『秘密曼茶羅教付法傳』·『秘藏要門集』·『玉澤不渴鈔』·『眞言二字義』).

일부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문자가 자주 보이는데, 경중이 심하게 교차하고 있다(『三教指歸私鈔』·『玉印鈔』).

### 4.3.2 印出面의 水平

高野版의 묵색을 전반적으로 관찰하면, 대체로는 유사하지만 수준이 약간 떨어지는 판본이 섞여 있다. 묵색의 농담은 진한 묵색으로 인하여 분간이 쉽지 않지만, 엽에 따라 편차가 있어서 목판과 견줄 만큼 균일한 엽과 아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엽이 공존하고 있다. 농담 차이가 크지 않고 균일한 편이다(『秘密曼茶羅教付法傳』·『秘藏要門集』).

묵색의 농담은 간혹 연한 문자가 섞여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이 없으면 묵색은 목판에 1수만 뒤질 만큼 균일한 엽도 적지 않게 보인다. 비교적 큰 차이는 아니어서 높이가 균일한 활자로 보인다(『三教指歸私鈔』·『金剛烽樓閣一切瑜伽瑜祇經』). 양면 인쇄한 배면의 문자가 은은히 투영되어 보인다(『金剛烽樓閣一切瑜伽瑜祇經』).

묵색의 농담은 엷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를 각각 보이고 있다.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소자 부분은 제법 균일하고, 대자는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간혹 행간에 소자를 배열한 경우가 보인다(『玉澤不渴鈔』). 활자본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의 차이이다(『開心鈔』).

묵색의 농담은 번질 듯한 문자와 연한 문자가 시종 공존할 만큼 제법 차이가 나서 활자본임을 금방 알 수 있다(『玉印鈔』). 판면이 깨끗하지도 고르지도 못함을 한 눈에 볼 수 있다(『眞言二字義』).

#### 4.4 印版 匡廓의 꼭지점

대부분의 판본이 변란이 없어서 판단이 불가능하다. 변란이 있는 『三教指歸私鈔』를 분석하면 광곽이 잘 인출되어 있다. 그러나 네 꼭지점의 결구는 4~6mm로 다소 크다.

조립식 광곽에 조임식 조판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일부 판본에 잠목 형태로 남은 흔적을 분석하면 짐작이 가능하다. 광곽 상·하변을 고정하기 위하여 광곽 상·하방에 11~12mm 폭의 긴 고정목으로 광곽을 지지하고, 그 위·아래에 가로×세로 = 9×11mm 크기의 고정용 나무못(쇠기)을 판심 위치를 비롯한 6~7개를 박아서 광곽을 조인 것을 알 수 있다. 좌우 변란은 5~6mm 밖에서 고정하였다(『開心鈔』). 상변은 14mm, 하변은 18mm 폭의 고정목 상하방에 고정하기도 하였다(『玉澤不渴鈔』). 상변 상방 15mm(『秘密曼茶羅教付法傳』), 19mm(『秘藏要門集』), 28mm(『眞言二字義』)의 위치에 고정하기도 하였다. 하변을 고정하기 위하여 11~12mm의 하방에 고정하기도 하였다(『金剛烽樓閣一切瑜伽瑜祇經』).

#### 4.5 기타

##### 4.5.1 界線 격자

기본적으로 모든 판본의 계선이 인출되지 않아서 분석이 쉽지 않지만, 잠목 등으로 일부 판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하면 2종류의 계선을 사용한 판본과 1종만 사용한 판본으로 구별된다. 『開心鈔』의 계선 폭은 4.5~5.5mm이고, 본문의 현토 부분에 조판을 위하여 2개의 계선을 사용할 경우는 2.5~2.8mm이다. 『玉印鈔』는 4.3~5.0mm와 2.5~2.6mm를 사용하였다. 1개의 계선을 사용한 경우는 3.5~4.2mm(『金剛烽樓閣一切瑜伽瑜祇經』·『秘藏要門集』), 또는 4.5~5.5mm(『玉澤不渴鈔』)를 사용하였다.

행폭은 12.5~14mm(『開心鈔』), 14~14.2mm(『金剛烽樓閣一切瑜伽瑜祇經』) 등 비교적 고른 경우도 있고, 14.5~18.0mm(『秘藏要門集』), 12.0~18.0mm(『玉印鈔』) 등 편차가 큰 경우도 있다.

#### 4.5.2 本文 字跡의 顛倒와 脫落

실사한 판본에서 전도의 경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三教指歸私鈔』의 경우 판심제와 장차에서 탈자가 보인다. 실사한 大東急文庫 소장본(제6책 결락)의 판심제 “三教指飯”에는 “飯”가 탈락된 경우가 여러 곳에 보인다. 장차 역시 三教指歸卷下私鈔<sub>上卷</sub>의 제51엽의 장차가 “五十”으로, 三教指歸卷下私鈔<sub>中卷</sub>의 제28엽의 장차가 “二十”으로 되어 있어서 “一”과 “八”이 탈락되었다.

#### 4.5.3 校正의 失手

『三教指歸私鈔』의 경우 권두제와 권말제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차에서 오자가 보인다. 실사한 大東急文庫 소장본(제6책 결락)의 권두제와 권말제는 다음과 같다.

책차	권두제	권말제
제1책	三教指歸卷上私鈔 <sub>上卷</sub>	(없다)
제2책	∴ 三教指歸卷上私鈔 <sub>中卷</sub>	(없다)
	∴ 三教指歸卷中二私	三教指歸上之中卷畢
제3책	∴ 三教指歸卷中私鈔	(없다)
	∴ 三教指歸卷之五私	三教指歸卷中
제4책	∴ 三教指歸卷之六私	三教指歸卷上私鈔畢
	∴ 三教指歸卷下私鈔 <sub>上卷</sub>	三教指歸鈔下之上卷畢
제5책	∴ 三教指歸卷下私鈔 <sub>中卷</sub>	三教指歸鈔下之上卷畢
	∴ 三教指歸卷下之中私鈔 <sub>下卷</sub>	三教指歸私鈔下之中卷畢
제6책	결락	

이처럼 권말제가 없는 경우도 있고, 권두제와 권말제가 다른 경우도 있어서 권차를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장차 역시 三教指歸卷中二私의 제27엽의 장차가 “三十七”로 잘못되어 있다.

『古筆拾葉鈔』의 간기: “右古筆鈔於高野山往生院開印板, 寬永十二年<sub>癸未</sub>九月吉日應宣開之”의 “應宣”이 “宣應”으로 잘못되어 있다.<sup>18)</sup>

#### 4.6 綜合 評價

조판기술 수준이 일본의 특성에 맞게 현토 등을 사용한 결과, 활자의 크기가 달라서 전반적으로 정돈되지 못한 상태이다. 활자의 탈락과 교정의 실수도 보인다.

18) 長澤規矩也, 『圖解和漢印刷史《解説篇》』(東京: 汲古書院, 1976), 47.

상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1종(『秘密曼茶羅教付法傳』)에 불과하며, 중상급 1종(『秘藏要門集』), 중중급 4종(『開心鈔』·『金剛烽樓閣一切瑜伽瑜祇經』·『三教指歸私鈔』·『王澤不渴鈔』), 중하급 2종(『玉印鈔』·『眞言二字義』)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중급이다.

## 5. 高野版 古活字의 印出技術

### 5.1 墨色의 濃淡

#### 5.1.1 全體의 墨色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판본이 묵색을 진하게 사용하였는데, 비교적 부드럽게 쓴 경우가 있다(『開心鈔』).

운모지에 의한 착묵 불완전으로 인하여 제법 농담 차이가 보인다. 묵색 자체가 다소 연한 엷이 보이기도 한다(『秘密曼茶羅教付法傳』).

#### 5.1.2 葉 간의 濃淡差

전반적으로 비교적 부드러운 묵색인데, 간혹 다소 진한 엷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開心鈔』), 반대로 진한 묵색인데 농담 차이는 크지 않지만 다소 연한 엷이 있는 경우가 있다(『金剛烽樓閣一切瑜伽瑜祇經』).

진한 엷과 연한 엷이 혼재하여 다소의 농담 차이가 보이는 경우가 있다(『秘藏要門集』·『三教指歸私鈔』·『玉印鈔』·『王澤不渴鈔』·『眞言二字義』).

### 5.2 墨汁의 번짐과 字跡의 깨짐

#### 5.2.1 墨汁의 번짐

대부분 판본이 책지를 두꺼운 고야지로 사용한 까닭에 인출면에 잘 붙지 않아서 착묵이 잘 안 되므로 힘껏 눌러서 인출한 결과, 요철과 함께 문자 필획의 측면이 반영되어 굵고 진한 문자가 시종 적지 않게 보인다.

힘껏 인출하여 문자면이 잘 반영된 반면에, 경미하지만 필획 간 번짐과 부분 번짐이 있다(『金剛烽

樓閣一切瑜伽瑜祇經」).

묵색의 농담과 관계없이 다소 지나쳐서 부분 번짐이 전체에 걸쳐서 수량과 정도의 차이를 보이면서 경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開心鈔」·「玉印鈔」·「王澤不渴鈔」).

부분 번짐이나 필획 간 묵즙이 번진 경우는 자주 보이는 반면에 연한 경우도 간혹 있어서 편차가 심하다(「秘密曼荼羅教付法傳」·「秘藏要門集」·「三教指歸私鈔」). 더 나아가 지나치게 힘껏 인출한 결과 문자면은 묵즙이 밀려서 필획은 연하게 착묵되고, 측면이 윤곽처럼 진하게 찍힌 문자가 적지 않다. 다소 묵색이 연하면서 비교적 균일하게 인출된 엽이 보이기도 한다(「秘密曼荼羅教付法傳」). 필획 간 번진 것도 있고, 착묵이 불완전하여 연하거나 점선으로 찍힌 것도 부분적으로 보인다(「三教指歸私鈔」).

부분 번짐이 거의 모든 엽에서 나타나고 있다. 번진 문자도 거의 모든 엽에서 보인다. 책지가 두꺼운 까닭에 힘껏 눌러서 민 결과로 보인다. 뒷면에 투사되어 문자가 서로 잘 보이지 않기도 한다(「眞言二字義」).

### 5.2.2 墨汁의 쓸림

쓸림 현상이 번짐이나 필획 측면 반영과 함께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묵색이 균일하지 못하면서 농담 차와 쓸림이 제법 보이기도 하고(「秘密曼荼羅教付法傳」·「秘藏要門集」), 책지가 두꺼워서인지 쓸림이 두드러진 경우도 있다(「金剛烽樓閣一切瑜伽瑜祇經」).

### 5.2.3 字跡의 깨짐

착묵에 큰 어려움이 없는 목활자에 묵색을 진하게 쓴 결과 자적이 깨진 경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 5.3 雜痕과 雜墨

잡묵 현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다(「眞言二字義」).

소량의 잡묵이 간혹 드물게 보이기도 하고(「秘密曼荼羅教付法傳」·「三教指歸私鈔」·「王澤不渴鈔」), 꾸준히 적지 않게 보이기도 한다(「開心鈔」·「秘藏要門集」).

대형 잡묵이 자주 보이기도 하고(「金剛烽樓閣一切瑜伽瑜祇經」), 대소가 수시로 보이기도 한다(「玉印鈔」).

#### 5.4 二重 印出

이중 인출 현상이 없거나(「開心鈔」·「秘藏要門集」·「三教指歸私鈔」·「王澤不渴鈔」·「眞言二字義」), 드물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金剛烽樓閣一切瑜伽瑜祇經」·「秘密曼荼羅教付法傳」·「玉印鈔」).

#### 5.5 印出의 方向과 強度

인출의 방향과 강도를 살피기 위하여는 책지의 문자가 반영되어 있는 인출면보다 배면을 살피면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고야판은 책지가 두꺼워서인지 인출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먹물이 밀린 자국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힘껏 인출한 결과로 요철 현상과 함께 문자 필획의 측면이 반영된 현상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5.6 着墨의 均整度

전반적으로 착묵 상태가 균일하지 못하다. 진한 묵색이 다소 과하여 필획의 측면 반영, 번짐과 쓸림 등 불완전 착묵 현상이 보편적이어서 농담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開心鈔」·「金剛烽樓閣一切瑜伽瑜祇經」·「秘密曼荼羅教付法傳」·「秘藏要門集」·「三教指歸私鈔」). 책지가 두꺼워서 힘껏 인출하였지만, 문자면 높낮이 차이를 완충하지 못하여 연한 문자도 간혹 보인다(「金剛烽樓閣一切瑜伽瑜祇經」). 운모쇄지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秘密曼荼羅教付法傳」).

착묵 상태가 균일하지 못하고 필획 측면 반영, 번짐과 쓸림 등 현상이 곳곳에 있어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면서 매우 안정되지 못한 모습이다(「玉印鈔」·「王澤不渴鈔」).

착묵 상태가 균일하지 못하고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으면서, 진하면 진한대로 연하면 연한대로 필획 측면 반영이 적지 않아서 판면이 깨끗하지 못하다. 조각술과 조판술을 상쇄하고 있다(「眞言二字義」).

#### 5.7 綜合 評價

전반적으로 묵즙을 사용하는 인출기술이 미숙하여 활자의 제작기술이나 조판기술에 비하여 낮은 결과, 완성된 제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증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5종(「開心鈔」·「金剛烽樓閣一切瑜伽瑜祇經」·「秘密曼荼羅教付法傳」·「秘藏要門集」·「三教指歸私鈔」)이고, 중하급 2종(「玉印鈔」·「王澤不渴鈔」), 하상급 1종

(「眞言二字義」)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겨우 중중급이다.

## 6. 高野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高野版의 활자 인쇄 기술은 부분적으로 구분하여도 상급에 해당하는 판본이 거의 없을 만큼 숙련되지 못한 수준이다.

중중급 5종(「開心鈔」·「金剛峰樓閣一切瑜伽瑜祇經」·「秘密曼荼羅教付法傳」·「秘藏要門集」·「三教指歸私鈔」), 중하급 2종(「玉印鈔」·「王澤不渴鈔」), 하상급 1종(「眞言二字義」)이다. 전반적인 高野版의 활자 인쇄 기술 수준은 겨우 중중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 7. 結 論

이상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高野版이란 和歌山縣 高野山 지역의 여러 사찰에서 賴慶와 朝印 등이 慶長 9년(1604)부터 正保 2년(1645)까지의 40여 년간 木活字를 이용하여 인출한 56종의 판본을 지칭한다.

판식 상의 특징은 대체로 광곽과 계선이 없다. 점엽장과 선장으로 대별되는데, 매엽 6~10행 17~20자이다. 예외적으로 승형본은 7행 12자이다. 대체로 小註雙行, 白口, 無魚尾, 약서명 소자의 版心題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고야판의 특징으로 고야지를 이용한 양면인쇄와 점엽장, 현토 활자와 운모쇄지의 사용 등을 들 수 있다.

(2) 活字의 재질은 자양이 일치하지 않고 도각의 흔적과 목리가 역력하여 목활자임을 알 수 있다. 製作技術은 필서체의 필의를 표현하고 있으나, 문자의 미감은 충분히 살리지 못한 수준이다. 보각한 활자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 기술 수준은 겨우 중중급.

(3) 組版技術은 字跡의 行列이 대체로 약간씩 정연하지 못하다. 빼떨어진 문자는 다소 나타나고 있고, 墨色 濃淡은 다소 균일하지 못하다. 광곽이 대부분 없지만, 있는 경우는 꼭지점이 4~6mm로 다소 크다. 교정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보인다. 기술 수준은 중중급.

(4) 印出技術은 전체적으로 묵색을 진하게 사용하면서도 농담 차이가 적지 않게 보이고, 墨汁의 번짐과 잡묵 그리고 이중 인출 등이 보일 만큼 균정하지 못한 수준이다. 기술 수준은 겨우 중중급.

(5) 전반적인 印刷技術 수준을 종합하면 겨우 중중급을 유지하고 있다.

## <참고문헌>

### 1. 목록·해제·도록류

- 慶應義塾大學附屬研究所斯道文庫編. 『慶應義塾大學附屬研究所斯道文庫貴重書蒐選圖錄解題』.  
東京: 汲古書院, 1997.
- 慶應義塾大學附屬研究所斯道文庫編. 『慶應義塾大學附屬研究所斯道文庫閱覽카드目録』. 東京:  
慶應義塾大學附屬研究所斯道文庫.
- 慶應義塾圖書館編. 『慶應義塾圖書館藏和漢書善本解題』. 東京: 慶應義塾圖書館, 1958.
- 大谷大學圖書館編. 『大谷大學圖書館所藏貴重書善本圖錄: 佛書篇』. 京都: 大谷大學, 1998.
- 大東急紀念文庫編修. 『大東急紀念文庫貴重書解題』. 東京: 大東急紀念文庫.
- 大東急紀念文庫編修. 『大東急紀念文庫書目』. 東京: 大東急紀念文庫, 1955.
- 大東急紀念文庫編修. 『大東急紀念文庫書目第二』. 東京: 大東急紀念文庫, 1978.
- 東洋文庫日本研究委員會編. 『岩崎文庫貴重書書誌解題』. 東京: 東洋文庫, 2000.
- 東洋文庫編. 『東洋文庫所藏漢籍分類目録: 經部(東洋文庫之部)·史部·子部』. 東京: 東洋文庫,  
1978, 1986, 1993.
- 東洋文庫編. 『岩崎文庫和漢書目録』. 東京: 東洋文庫, 1934.
- 東洋文庫編. 『漢籍分類目録: 集部(東洋文庫之部)』. 東京: 東洋文庫, 1967.
- 東洋學文獻センター-連絡協議會編. 『東洋文庫所藏漢籍分類目録』. 東京: 東洋文庫, 1967.
- 藤堂祐範. 『淨土教古活字版圖録』. 京都: 藤堂祐範, 1934.
- 反町茂雄編. 『弘文莊古活字版目録』. 東京: 弘文莊, 1972.
- 川瀨一馬編. 『高木文庫古活字版目録』. 東京: 高木義一, 1933.
- 天理大學附屬天理圖書館編. 『天理圖書館稀書目録: 和漢書之部第一二三四』. 天理: 天理大學出  
版部, 1940, 1951, 1960, 1998.
- 天理圖書館編. 『古活字本日録: 附年間主要增加和漢書目』. 天理: 天理大學出版部, 1961.
- 天理圖書館編. 『善本圖録』. 天理: 天理大學出版部, 1997.
- 天理圖書館編. 『天理圖書館古義堂文庫目録』. 天理: 天理大學出版部, 1956.
- 後藤憲二編. 『寛永版書目并圖版』. 武藏村山市: 青裳堂, 2003(日本書誌學大系91).

### 2. 저술·논문류

- 木宮泰彦. 『日本古印刷文化史』. 東京: 富山房, 1975.
- 水原堯榮. “高野版の研究.” 『水原堯榮全集5』. 東京: 同朋舍, 1981.
- 水原堯榮. “高野版英華.” 『水原堯榮全集別卷1』. 東京: 同朋舍, 1981.
- 滋賀縣教育委員會事務局文化財保護課. 『延曆寺木活字關係資料調査報告書(本編)』. 大津市: 滋

賀縣教育委員會, 2000.

長澤規矩也. 『圖解和漢印刷史《解說篇》』. 東京: 汲古書院, 1976.

長澤規矩也. 『圖書學辭典』. 東京: 三省堂, 1979.

井上宗雄. 『日本古典籍書誌學辭典』. 東京: 岩波書店, 1999.

曹炯鎮. “古活字 印刷技術의 評價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25(2003. 6), 369-406.

조형진. “日本 高野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2017년 한국서지학회 추계 공동 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17. 11. 24), 113-143.

曹炯鎮. “日本 伏見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59(2014. 9), 65-101.

曹炯鎮. “日本 駿河版 및 紀州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60(2014. 12), 71-107.

川瀨一馬. 『日本書誌學之研究』. 東京: 講談社, 1971.

川瀨一馬. 『增補古活字版之研究』. 東京: 共立社, 1967.

和田萬吉. 『日本古活字本研究資料』. 東京: 清閑舍, 1944.